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 내달 본격화

역사성 보존·수익형 개발 고심...도시경쟁력 제고 초점

李시장 "주상복합·고층아파트 위주 개발 안돼" 재확인

광주 근대산업 유산인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그동안 역사·문화성을 강조한 보존과 수익 개발을 놓고 고심하던 광주시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 합

동 테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계획안을 만들어 다음 달 중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계획 안대로라면 공장 부지 일대가 공업 용지에서 상업·주거 용지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땅값 상승액 중 일정 부분을 공공 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 측은 지난 4월 개발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광주시 테스크포스는 지난 1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와 용역을 통해 주요 시설 보존과 개발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테스크포스는 공장 부지에 남아 있는 각종 시설물(건물 등)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역사·경관·활용 가치 등 5개 주제별로 4개씩, 모두 20개 세부 기준을 설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기본 현황 조사를 마쳤다. 특히 공장 내 자체

발전소는 역사성 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되, 공장과 설비·기숙사 등 나머지 핵심 시설물에 대해선 아직까지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고층아파트나 레지던스 호텔, 주상복합 등은 도시계획 기본 방침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시장도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위주 개발을 허용하지 않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익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역사 문화 자산으로 보존하고 이에 따

라 개인(토지 소유주)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 개발은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라며 "어렵기는하겠지만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수익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방직 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가내보방직으로 출발했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1951년 민간에 불하돼 전방(주)으로 민영

화됐고,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추가 설립됐다.

전방은 지난 2017년 가동을 중단, 일신방직은 현재까지 부분 가동 중이며 모두 30만㎡에 이르는 대단지 규모다.

시민에게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현재 1930년대 당시에 지어진 철골구조로 지은 화력발전소와 고가수조(물 저장시설), 제 1·2 보일러실에 대한 보존방향이 나온 상태다.

1960~70년대에 지어져 여공들의 삶의 흔적이 남은 공장과 기숙사 등은 보존 여부 조사 대상이다. 전방과 일신방직은 지난해 7월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6천8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이 임박해지자 시민사회에서는 시설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오승지기자

文대통령 "새 방역체제로 전환 모색"



정부,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

의 모두발언에서 "1차 집중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성인의 접종률은 70%에 다가가고 있다. 접종완료율도 40%를 넘어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백신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위드(wit h) 코로나'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의 한 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내수 회복세가 더뎠던 서비스업,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이 깊어져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기기자

광양중 관련 25명 집단감염...감염경로 미궁

방역당국·교육청, 이동중지 권고 등 긴급대응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 27명(광양 22명, 순천 3명, 화순·장성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696·2722번으로 분류됐다.

광양에서 확진된 18명은 광양중 학생, 4명은 이들의 가족이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4일 1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해당 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집단감염과 관련된 최초 감염자는 특정되지 않고

있다. 확진자 분류 번호 기준으로는 지난 4일 확진자 중 검사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 확진자가 최초 감염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명확한 최초 감염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역학조사관을 긴급파견해 위험도 평가와 접촉자 분류에 나섰다. 확진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검체에 착수했다. 긴급검사 우선순위는 확진자 가족, 가족의 직장 근무자, 형제자매 학교, 지역 주민 순이다. 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 뒤 이동 검사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고교 3학년을 제외한 광양 지역 모든 유·초·중·고교는 이

날 하루 원격수업을 하도록 조치했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 감염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에도 즉각 대응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광주에선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하루 2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17명은 광주시가 외국인 등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확진된 사례다.

이외에도 광산구 소재 물류센터 관련 2명, 기존 지역 확진자 관련 5명,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1명, 해외유입 1명 등으로 파악됐으며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오승지·임후성기자



추석 앞두고 떡집 위생 점검

추석 명절을 2주앞둔 6일 오전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관내 한 떡 생산·판매업체에서 제품의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점검을 하고 있다. /김에기기자

미래에셋, 경도 개발 4천300억 자금 투입

관광테마시설·호텔 등 연내 투자 착수

1조5천억원 규모의 여수 경도해안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올해 하반기 관광테마시설·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해 4천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투자금 4천300억원은 워터파크와 엔터테인먼트센터, 마리나 등 관광테마시설 및 3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조성에

사용된다.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지난 달 해양친수공간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관광테마시설과 호텔에 대한 세부 설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은 현재 운영중인 세이비드 여수경도CC를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에 60억원을 투자해 일부 코스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작했고 매년 상당 규모의 코스 개선 및 조경공사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500억원을 들여 기존 클럽하우스를 대체할 새로운 클럽하우스를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4천30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광테마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에 따라 자금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 중앙정부,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년 3월 개교!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세계적 석학 포함 우수 교수진

국내 최고 수준 장학 혜택

등록금 및 기숙사 전액지원

연구비, 창업비, 생활경비 지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세계 TOP 10 공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 **첫번째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 2021. 9. 10.(금) ~ 2021. 9. 14.(화) / 100명(학생부종합전형)

정시모집 : 2021. 12. 30.(목) ~ 2022. 1. 3.(월) / 10명(수능우수자전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센터) T. 061 330 9690~9694 F. 061 333 9626 www.kentech.ac.kr